

건강 칼럼

원숭이두창 감염

코로나9가 점차 감소세로 나타나면서 원숭이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코로나9처럼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확진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두창(천연두)과 유사한 바이러스 질환이다. 잠복기로 호환 마라라고도 불리는 천연두는 발열, 수포, 농포성의 피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질환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질환이다. 한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1979년에 전 세계적으로 두창은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됐고 현재까지 질병의 발생이 보고된 바가 없다.

원숭이두창은 사람 감염 사례가 1970년 최초 발견된 이후 중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콩보병화 됐다. 그러나 2022년 5월 7일 영국에서 원숭이



김이은
구암한의원장

두창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6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30여개국에서 550명 이상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콩보병 지역인 아프리카 이외 유럽과 북미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Monkey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두창(천연두)보다 전염성

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사람 간에는 병변과 체액, 호흡기 비말(침방울), 침구 등 오염된 물건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자 대부분은 자연 회복되며 치명률은 3~6% 안팎이다.

증상은 천연두와 비슷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점차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구

진성(丘疹性, 경계가 뚜렷하고 언덕과 같이 조적이 용기된 형태) 발진의 경우 수포나 농포 등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손에는 수포성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보통 6~13일이며 발현된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된다.

치료의 경우 전용 치료제는 없고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수액공급과 전해질 교정, 피부 관리, 감염 합병증 조절 등이 필요하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에는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아픈 동물의 서식지 및 물건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등)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접착 부위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감염된 환자의 경우 격리 조치를 행해야 하며 환자 보호 시에는 개인 방역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설

전북 도내 경로당 활성화 문제

백세시대를 위해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노인회의 근거와 중심은 경로당이다. 노인 복지는 우선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현대화,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건강을 지키고 지식도 습득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경로당 관련 좋은 프로그램은 가이드북을 만들거나 유튜브를 통해 보급해야 한다.

노인 누구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공유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사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1대1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 방문 서비스 제도도 필요하다.

특히 거절 경로당을 통한 디지털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추진이 절실하다. 스마트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주거적인 경로당에 와이파이(WIFI)와 IPTV

설치 등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복합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대전 유성구지회가 시범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경기 부천시도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설치를 했다.

올해는 경북 성주군지회, 제주 서귀포시지회, 대구 달서구지회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실시한다.

경로당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전국의 6만7000개 경로당 가운데 와이파이를 설치돼 있지 않은 경로당은 1만4000개 정도다. 먼저 전국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활성화 사업의 방향 등에 대해 일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경로당 시대에 맞도록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한국 관광 셋별 완주

완주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요즘 완주군 관광지들이 국내 주요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를 통해 집중 조명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 군수는 "완주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시간 쉼터 관광자원들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JTBC 방송사는 지난 5월 23일 저녁 11시 여행기획 다큐 '아티스트 웨이' 완주편 총 2부작 중 1편을 방영했다. 화암사와 고산 미소시장, 소양 오성한옥 마을, 운주 캠핑장, 대둔산,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 제 2편도 방송을 됐다.

5월 13일에는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완주 및 중창지로 북은지담볶음탕, 숯불돼지갈비, 흥어백반집이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KBS1 TV 6시 '발걸따라 고향기행'에 완주군

구이면의 대한민국 슬레타 박물관과 구이지수지 들레길, 구이 안덕마을 등이 나왔다. TJB(대전방송) '화합기행'에는 만경강과 비비정, 유류열 미술관 등이 소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KBS1 TV '숨터'에 위봉산성이 나왔다.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라이브'에서는 대둔산과 화암사 등이 공중파를 탔다.

중앙 일간지 10개 매체는 만경강과 경천 운문굴 편백숲, 화암사, 고산미소시장 등 완주군 명소를 보도하고 있다. 월간 여행 전문 매거진 KTX 매거진과 SRT 매거진, 여행스케치, 트래비 등도 주요 관광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여행업이 크게 위축됐는데도 완주군의 관광객 수는 1~3월 중에 78만 명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보다 무려 45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완주군이 앞으로도 주요 미디어 매체가 주시하는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반려견 모시고 달리는 볼리비아 여성



19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리파스에서 시민들이 '페로톤(Perroton)'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에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 달리고 있다. 볼리비아 경찰은 동물 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 시민들이 그들의 반려동물과 함께 달리는 '페로톤' 혹은 '도거톤(Dog-a-thon)'이라는 이름의 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기자회견하는 존 리 홍콩 신임 행정장관



존 리 홍콩 신임 행정장관이 19일 홍콩에서 홍콩특별행정구 6기 내각 지명자들과 기자회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내달 1일 출범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제6기 정부의 주 요 관리를 임명했다. 국무원은 6기 내각은 28명으로 구성했으며 그중 6명이 여성으로, 역대 여성 비중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